

미술 자료, 공공 기록물로 인식해 정책적 지원해야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자타가 공인하는 김달진(59 해오름교회) 관장의 별명이다
40여 년 간 미술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통계를 내고,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읽어왔다
덕분에 미술 자료에 관해서는 ‘김달진’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할 만큼 유명하다
‘김달진 미술 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전시와 방대한 자료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6월 26일부터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단다 왜일까.
김달진 관장을 홍대 인근에 위치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만났다.

정확한 기록이 정확한 역사로

김달진 관장은 충북 옥천이 고향이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수집을 시작했다 우표, 껌 종이, 상표, 담배갑 등등 여성 잡지 등에 실린 세계 명화도 모았다 인쇄물이나 컬러 잡지도 흔치 않던 시절이라 색캔트지에 잘 오려붙여서 나홀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취미는 점점 전문성을 띄게 됐다 국내 작가들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한 것은 20대 때다 1972년 경북궁에서 열린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을 보고 나서였다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 점점 미술에 대해 눈 뜨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형편이 어려워 꿈도 꾸지 못 했구요. 취업을 위해 미술 자료를 모으면서 이름을 알게 된 미술 평론가나 기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구요.” 답장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월간 전시계>라는 미술 잡지를 보고 잡지사로 전화를 걸었다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가 무명 시절에 주필로 근무하던 잡지사였다 3년 동안 사환 겸 기자로 일했다 1980년 폐간 되면서 직장도 잃었다

“미술 평론가인 이경성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예전에 제가 만든 스크랩북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찾아뵈었던 적이 있던 분이 예요. 그 인연으로 ‘일용직급’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당 4,500원을 받으며, 화가들의 인명 카드를 정리하고 자료

집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매주 금요일이면 직장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사동과 동숭동 화랑가를 돌았다 팸플릿과 도록,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갤러리에서는 달진 씨를 그리 반기지 않았다 전시된 작품과 도록에 실린 작품을 비교해서 따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전시회장에 없는 작품을 왜 팸플릿에는 실었냐”부터 “팸플릿에는 85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전시된 작품 수는 78점이나”까지 다양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대조해가며 팸플릿을 모았을까 “전시가 끝나면 결국 남는 것은 팸플릿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것만이 전시회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달진 씨는 미술계의 뉴스메이커였다 문예연감의 엉터리 통계, 돈을 받거나 인사치레로 덕담을 해주는 평론가의 ‘비평 횡수’ 등, 누구도 무엇도 달진 씨를 피해갈 수 없었다 발표하는 족족 언론사는 그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술계의 지명도는 높았지만 현실의 벽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15년 간 한 우물을 팠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달진 씨는 '기능직 10급'의 최하위직에 머물러 있었다 자격이 부족한가 싶어 '준사서 자격증'도 땀다 학력이 부족한가 싶어서 만학에 도전하기도 했다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에 입학한 것.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공로는 인정하지만 직제상 다른 자리가 없고 승진 케이스가 없다는 답만 되풀이 했다 1996년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났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 온 일을 인정한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회장님이 자료실장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2001년에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면서 독립할 수 있었어요. 고비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심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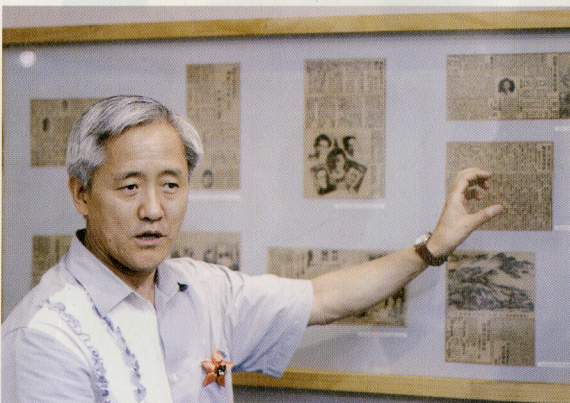
방대한 자료, 2차 자료로 재구성해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다 미션스쿨이었다 채플시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 근처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이 됐다 신실한 신앙인을 아내로 맞아 교회에서 결혼식도 올렸

다 석계동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았다 방 안에는 부부만이 아니라 자료 박스도 함께였다 자료가 어찌나 많은지 바닥에 상자들을 죽 늘어 놓고 그 위에 요를 펴고 잘 정도였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다 아내는 누구보다 달진 씨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기도해 주는 든든한 지원자였다 어려움도 있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다 알고 보니 왜소증이라는 병이었다 성장호르몬이 부족해서 또래만큼 자라지 못한 것. 한 달 주사비만 45만 원이었다 달진 씨는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내는 새벽 기도에 매달렸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아는 분이 L의학사업부를 소개해 주셔서 주사약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병은 완치되었어요. 태권도, 복싱으로 몸 단련을 하더니 해병대에 자원할 정도로요. 지금은 홍익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방학을 맞아 필리핀 단기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화창작을 전공한 딸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김달진 관장이 2002년 1월에 창간한 <서울아트 가이드>의 광고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



평생을 바쳐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을
최상의 미술아카이브를 건립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트가이드>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최신 미술 전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료 정보지다 같은 해 9월에는 미술종합포털 달진닷컴www.daljin.com을 개설했다

2008년, 동숭동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다 공간이 협소했다 지하라 비만 오면 물이 섰다 문화부가 실시하는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에 응모했다 덕분에 홍대 건물 3개층을 빌려 쓸 수 있었다 전세보증금만 9억 7천만 원. 이 중 8억 27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오는 9월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보증금을 정부에 반환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비엔날레 등 가시적인 것에 지원해야 생색이 나지, 미술 자료 보관에 지원하는 것은 주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몇 명이나 그걸 이용하느냐’며 효용성을 따지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예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자료를 모아 놓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달진 관장은 혼자 끙끙대며 자료를 안고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반문해 보기도 했다 공공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보관의 필요성을 알고 애정을 갖고 해낼 사람이 그 기관에 있을까 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 관장이 자료통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단순히

자료가 많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대한 1차 자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2차 자료로 재구성해왔다 1950년 이후 출생한 한국 근현대 미술계 인사 4,909명을 총정리해 <대한민국미술인 인명록>을 펴냈고,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1945년 이후 설립된 미술단체를 소개한 <한국미술단체 자료집> 등이 그것이다

“평생을 바쳐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을 최상의 미술 아카이브를 건립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작 단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감상하고 평론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미술 아카이브는 국가의 유산, 공공 기록물로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한눈 팔지 않고 40년 외길 인생을 살아온 김달진 관장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정보를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기록보관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자 문화적 경쟁력을 재는 척도”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 나라의 문화 수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단계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www.daljinmuseum.com

글 사진 이연경 sorr2@naver.com